

The Amazing Turnabout 1st March 2015  
(Daniel 4:1-37)

<p>Daniel chapter 4 is the last we see of Nebuchadnezzar - but the chapter contains the story of one of the most amazing turnabout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 the conversion of a proud, pagan king.</p>	<p>다니엘서 4 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이지만, 이 장은 세계 역사 상 가장 놀라운 반전 중 하나를 담고 있는데, 바로 교만한 이교도 왕의 개종입니다.</p>
<p>Let's remind ourselves of the background of the book of Daniel. Jerusalem has been destroyed by the Babylonians and God's people have been carried off into captivity. They find themselves in exile in Babylon - politically disenfranchised, territorially dispossessed, a marginalised people swallowed up by a great pagan empire. And then, out of the blue, something amazing happens. God reaches out and humbles the most powerful of their pagan masters - King Nebuchadnezzar himself. What an encouragement that must have been to the Jews in Babylon and what an encouragement it is to us today. Living, as we are often reminded, in a post-Christian era - the days when the church really had clout and influence in society are gone. We are marginalised people, we are a minority, swallowed up by a great pagan society, by secular humanism. That's where we are today! And what an encouragement to know that God is sovereign - he is still on the throne. And he is able to reach out and bring down even the most formidable of our foes - even a man like Nebuchadnezzar can be humbled under the mighty hand of God.</p>	<p>다니엘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고, 위대한 이교도 제국에 집어삼켜져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영토를 빼앗긴, 소외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그들의 이교도 주인들 가운데 가장 힘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게 하십니다. 바빌론의 유대인들에게 이 얼마나 용기를 북돋는 일이었으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우리가 종종 상기하게 되듯이, 후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사는 것과 같이 교회가 사회에 진정한 영향력을 갖던 시대는 갔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교도 사회에 의해, 세속적 인본주의에 의해 집어 삼켜진 하찮은 백성이며 소수 민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절대자이며, 여전히 왕좌에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또한 하나님은 손을 뻗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조차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p>
<p>The story in Daniel 4 is in 3 acts or scenes. The first act, which is the longest (vv. 4-27) is a rebuke to Nebuchadnezzar's pride. It is surely very significant that what you have in chapters 4 and 5 of the book of Daniel is the account of 2 kings - Nebuchadnezzar and his successor, Belshazzar. Both are proud, arrogant men, but one is saved from his arrogance by the sovereign grace of God while the other is destroyed in his arrogance.</p>	<p>다니엘서 4 장의 이야기는 세 장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긴 (4-27 절), 첫 번째 장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한 질책입니다. 다니엘서 4 장과 5 장의 내용이 두 명의 왕 -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계자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왕 모두 교만하고 오만했지만, 한 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 교만으로부터 구원받지만, 다른 하나는 그의 오만함으로 파멸됩니다.</p>
<p>There is no doubt that Nebuchadnezzar was a proud, arrogant man. Listen to what he says in v. 30 as he looks out on the city of Babylon: "Is not this the great Babylon I have built as the royal residence, by <u>my</u> mighty power and for the glory of <u>my</u> majesty?" He sees Babylon almost as a mirror - reflecting his own greatness and power and majesty. Though outwardly Nebuchadnezzar presented an image of powerful self-confidence, or arrogant pride, yet inwardly he was very insecure and was dependent upon the approval and praise of others. You see it in his dream life in chapters 2 and 4. In both chapters he has the same kind of</p>	<p>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0 절에서 그가 바빌론 도성을 바라보며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u>나의</u>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u>내</u>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는 바빌론을 마치 자신의 위대함과 권세, 위엄을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여깁니다. 비록 겉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자신감 혹은 오만한 자부심이 가득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지만, 내심으로는 매우 불안정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에 의지했습니다. 이는 2 장과 4 장에 그려진 그의 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장</p>

The Amazing Turnabout 1st March 2015  
(Daniel 4:1-37)

<p>dream, a dream that everything he has built and achieved and which is so impressive to the world, is all going to be taken away from him; it is all going to fall and collapse.</p>	<p>모두에서 그는 같은 종류의 꿈을 꾸었는데, 그가 건설하고 이룬 모든 것, 세상에 너무나 인상적인 것 모두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붕괴될 것입니다.</p>
<p>This man who is so very powerful - indeed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of his day - is yet so basically very insecure. He is haunted by the fear and anxiety that all his wealth and power and status is going to be taken away from him.</p>	<p>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사람 - 실로 그 시대의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자가 근본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 그 지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고 있었습니다.</p>
<p>God is dealing with this man. We have seen it in progress as the book of Daniel unfolds. In chapter 1 he is interested in the God of Israel, a god he has not come across before. The gods he serves - Bel or Marduk, Aku and Nebo - are dumb idols. But now in Daniel and his 3 friends -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 he sees something of the living God at work in the lives of his people. In chapter 2, he is more than interested - he is impressed. When Daniel comes to interpret his nightmare and speak to his unspoken fears, he is so impressed that he makes some kind of public profession of faith - "Surely your God is the God of gods and the Lord of kings and a revealer of mysteries, for you were able to reveal this mystery." (2:47). God is dealing with this man. It comes as a bit of a disappointment in chapter 3 to find Nebuchadnezzar falling into idolatry - building a huge statue and demanding that everybody should bow down and worship it. But in a strange sort of way even that is encouraging - even the barbarism and ferocity when he order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 thrown into the fiery furnace is encouraging. It's like Saul (later Paul) bearing down on Damascus,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followers of Jesus. Why was Saul so angry and ferocious? Because God was pricking his conscience and he had seen in the face of Stephen, as he was being stoned to death, something of Christ. And that is exactly what Nebuchadnezzar had seen in the burning furnace - something of Christ. The Son of God himself was the fourth person there in the fiery furnace - saving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so at the end of chapter 3, he makes a public declaration - "Therefore I decree that the people of any nation or language who say anything against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 cut into pieces and their houses be turned into piles of rubble, for no other god can save in this way" (3:29). And so over a period of 15-20 years God deals with this man - hounds him and pursues him.</p>	<p>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가 전개되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신, 그가 전에 겪어 본적이 없는 신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섬기는 신들은 - 벨 또는 므로다, 아쿠, 느보 - 말 못하는 우상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서 -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2장에서 그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하러 와서 자신이 말하지 못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감명받아 대중 앞에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2:47).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고 계십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 그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하고 경배할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조차 고무적입니다 -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할 때 그가 보인 만행과 횡포조차 고무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다메섹으로 돌진하고 있는 사울 (후일의 바울)과 같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분노하고 흥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콕콕 찌르고 계셨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스테반의 얼굴에서 무언가 그리스도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보았던 것, 무언가 그리스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 자신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구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3장의 끝부분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찌니 이는 이같이</p>

The Amazing Turnabout 1st March 2015  
(Daniel 4:1-37)

	<p>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3:29). 그러므로 15-20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며 쫓아 그를 다루십니다.</p>
<p>As we come to chapter 4, Nebuchadnezzar is troubled again. God is speaking to him once more through his dreams. And once again God brings Daniel to interpret the dream. Notice that the king didn't turn to Daniel straight away. First he tried the magicians, the enchanters, astrologers and diviners. Why didn't he go straight to Daniel? After all, Daniel had the proven track record. I suspect that Nebuchadnezzar didn't turn to Daniel straight away because he knew in his heart of hearts what the dream was all about. And he knew that if Daniel were to come, Daniel would tell him what he didn't really want to hear. What a wonderful example Daniel is to us here, what a model he is to Christians living in a secular society - what a model of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counsellor dealing with people with weighty problems, often difficult people full of their own self-importance. In v. 19 we see that Daniel was perplexed and distraught when he heard of Nebuchadnezzar's latest dream. He says to Nebuchadnezzar, "I wish that I didn't have to say this to you. I wish I was talking to one of your enemies." He has an empathy with the king - he's been praying for him for almost 20 years. He is moved as he comes to minister to this man. As he speaks the truth, God's truth, into this man's life, he doesn't do it in a cold, judgmental kind of way. He is warm to Nebuchadnezzar, he is moved and distressed for him and yet he does not flinch from telling it to him straight. "God sees pride in your life, Nebuchadnezzar," he tells the king, "and God does not like what he sees. God does not like that proud, arrogant spirit of yours and unless you repent, unless you renounce your pride, God is going to judge you." Daniel is speaking to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 a ruthless and dangerous man - and yet he does not flinch. He speaks the truth...in love. And that is how <u>we</u> are to relate to people - we are to speak the truth but in love.</p>	<p>4 장에 이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곧바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처음에 그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렀습니다. 왕은 왜 곧바로 다니엘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결국 다니엘은 이미 입증된 실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 속으로 이미 그 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다니엘이 온다면, 다니엘은 그가 정말로 듣기 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여기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본보기입니까, 세속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 중대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종종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가득한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다루는 크리스천 상담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얼마나 좋은 본보기입니까. 19 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최근에 꾸는 꿈을 듣고 당혹하며 번민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왕께 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왕의 대적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 그는 거의 20 년간 왕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시중을 들게 되면서 그는 가슴 아파합니다. 다니엘이 진실, 하나님의 진실을 말할 때, 그는 냉정하게 심판하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그를 위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 속의 교만함을 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만하고, 오만한 영혼을 좋아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 무자비하고 위험한 사람- 말하고 있지만, 그는 움츠리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방법입니다 -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p>
<p>This brings us to the second act or scene. God</p>	<p>이는 우리에게 두 번째 장면을 상기시킵니다.</p>

has been dealing with Nebuchadnezzar for nearly 20 years. He has been genuinely influenced but not yet converted. His paganism has been modified somewhat but not yet abandoned. The God of Israel, the God of the Bible, has gained his official approval but not yet his personal surrender. He is not ready or willing yet to bow to the kingship of God - to yield to his sovereignty. Verse 29 tells us that this second act of the unfolding drama occurs 12 months later. A whole year has passed and still this man is resisting the Word of God. Notice that what is described here in vv. 28-33 is in the third person. The rest of the chapter - the verses before and after this section - is in the first person. It is Nebuchadnezzar's personal testimony. Not only that, but it appears that he has put it in an edict which he published throughout his whole empire - throughout the world of his day. Just imagine it - the most high profile world leader testifying to the world that he has been converted to the God of Israel! So most of the chapter is in the first person singular - Nebuchadnezzar's testimony - until you get to the vv. 28-33 which is in the third person. Why? Well, as we read these verses the reason becomes clear because what is described for us in them is a major mental breakdown. Nebuchadnezzar himself could probably not recall the details of this period of his life. Verse 32 refers to its length as "seven times" - 7 weeks, 7 months or 7 years. It is probably 7 years. He was too distressed, too confused to remember much about that time. He had suffered a major psychotic breakdown. The whole thing would no doubt have been hushed up. That is what happens in totalitarian regimes when the leader gets sick; we've seen it happen with the Kim leadership in North Korea. So, Nebuchadnezzar's breakdown would have been hushed up at the highest level - very few people would have known the real facts of the case. God is dealing with this man; this king who had such great power and influence. It is a sobering thought, isn't it? God always gets his man - or woman. That is what grace means. God's grace woos and draws us - but there is also a strength about it because God's grace is his determination to save. We see here the strength and power of God's grace. God has been knocking on the door of this man's life - in chapter 1 of Daniel, in chapter 2, in chapter 3 and now again in chapter 4 - over a period of nearly 20 years. Knocking louder and louder until, in the end, he comes and puts his shoulder to the door as it were, and takes the

하나님께서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거의 20 년간 다루고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진정으로 감화 받았지만 아직 개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교도 숭배는 다소 수정되었지만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성경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공식적 인정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굴복한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왕권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굴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29 절에서는 전개되고 있는 이 드라마의 두 번째 장면이 12 개월 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꼬박 1 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고 있습니다. 28-33 절에 기술된 것이 3 인칭 시점으로 적혀있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4 장의 나머지 부분 - 이 부분의 앞 뒤 절들 - 은 1 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 증언입니다.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들을 그의 왕국 전체에, 그 시대 세계 전체에 그가 공포했던 칙령에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 가장 저명한 세계 지도자가 세상에 대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개종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의 대부분은 3 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28-33 절에 이를 때까지, 1 인칭 단수 시점 - 느부갓네살 왕의 증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절들을 읽어 내려가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기술된 것은 심각한 신경쇠약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은 아마도 그의 삶 중 이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떠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32 절에서는 그 기간을 "일곱 때" - 7 주, 7 개월 혹은 7 년이라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7 년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때에 관해 많은 것을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심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쉬쉬하며 감춰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정권에서 지도자가 병 들면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북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경쇠약은 고위층에서 감추어졌을 것입니다 -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와 관련된 진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루고 계십니다;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왕을 말합니다. 실로 우리를 각성케 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항상 자신의 사람을 구하십니다. 그것이 은혜가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애를 하며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 하지만 여기에는 힘 또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The Amazing Turnabout 1st March 2015  
(Daniel 4:1-37)

<p>door right off its hinges - literally. He unhinges the king - he takes away his sanity - in order to bring him to his senses. If only he had listened to Daniel earlier, if only he had responded to the testimony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chapter 3, he could have been spared all this. He would have been spared the dreadful experience that he had to live through - probably for 7 years - of total derangement.</p>	<p>은혜의 강도와 힘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 다니엘 1 장에서, 2 장에서, 3 장에서, 그리고 또 다시 4 장에서 - 거의 20 년의 기간 동안 구애자였습니다. 점점 크게 문을 두드리다 결국에 가서는 문으로 가서 어깨를 대고 밀어, 문자 그대로 문을 그 경첩에서 뽑아버립니다. 그는 왕이 제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왕의 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게 만듭니다.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만일 그가 3 장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의 증언에 응답하기만 했다면,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겪어야 했던 - 아마도 7 년간 - 그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p>
<p>Isn't there a very important lesson for us here? Isn't this exactly where our society is heading? Do you remember what Paul says in Romans chapter 1:28 - "Since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he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to do what ought not to be done." God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That is what we have got here with Nebuchadnezzar - "Is not this the great Babylon I have built..by my mighty power and for the glory of my majesty?" (v. 30). Never mind about God, never mind about glory to God - rather glory to man, man is the master of things. That is the mentality of our world, isn't it? That is human secularism. That kind of thinking is madness. God's judgment upon a society, upon a culture, which adopts that kind of attitude is to gi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Isn't that what we see happening in our society today with its child abuse, pornography, abortion, gay mardi gras and so on?</p>	<p>여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 1:28 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30 절).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세속주의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광기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취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동학대, 외설물, 낙태, 마디그라 게이 축제 등등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p>
<p>But this isn't the end of Nebuchadnezzar. There is one more act left in the drama. Act 3 is found in vv. 34-37 and it describes the most amazing turnabout! Nebuchadnezzar, who had lived all his life thinking that God, if indeed there was a god, could play second fiddle to his ego, is suddenly brought to his senses. For the first time, at long last, he is brought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a king, a ruler, greater than him. In this testimony which he gives in chapter 4, he calls him, "the Most High God". Six times in chapter 4 he refers to the God of Israel, the God of the Bible, the God whom he has seen in the lives of Daniel and his 3 friends, as, "the Most High." And on 3 occasions - in vv. 17, 25 and 32 - he says that the Most High rules over the</p>	<p>하지만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끝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 남은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드라마의 3 장은 34-37 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장 놀라운 반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부심에 들러리 노릇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그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왕,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4 장에서 그가 하고 있는 증언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부릅니다. 4 장에서 6 번이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서 보았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칭합니다. 또한 세 번의 경우에 -</p>

The Amazing Turnabout1st March 2015  
(Daniel 4:1-37)

<p>kingdoms of men and gives them to anyone he wishes. Nebuchadnezzar had come to understand that God rules over the kingdoms of the world, he rules in the affairs of men and nations, he rules in the lives of men and women. He rules in your life and in my life. He is absolutely sovereign and he gives it to whom he will. How much our society needs to hear that - people like Nebuchadnezzar who have only ever lived for themselves, to please themselves, living for their own self-advancement. Such people need to hear this: That little kingdom, that little empire that you are building up for yourself, whatever it may happen to be, that little kingdom of yours in which you find significance and meaning and reassurance in life - that little kingdom is given to you by the sovereign goodness of God and just as surely as he gives it to you, he can take it away from you. Your looks, your personality, your brain power, your business acumen, your creativity, your health, your wealth - all these things that we rely on, all these things that we find significance in, can be taken away from you. A phone call, a doctor's appointment, an MRI, and your empire can come crashing down to the ground. What madness it is to trust in ourselves! You are out of your mind if you think that you can find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in your own little kingdom. For it may be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The Most High rules and he give the kingdom to whom he will - it is all in his sovereign gift.</p>	<p>17 절과 25 절, 32 절에서 -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국을 통치하시며, 인간과 나라의 일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남녀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의 존재이며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자기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자신의 향상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들어야 하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 그 작은 왕국, 그 작은 제국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의미와 중요성, 삶의 확신을 찾고자 하는 그 작은 왕국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여러분께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께 주셨듯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 성품, 지적 능력, 사업 수완, 창의력,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부 -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으로부터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 의사 진료 예약, MRI, 그러면 여러분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미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없어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 그것은 모두 그분의 주권적 선물 안에 있습니다.</p>
<p>In the Sermon on the Mount, Jesus said,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Matthew 6:33). In other words, "Seek God's kingdom first and how to get right with God". Put that first and then all these other things will be added to you. Nebuchadnezzar would agree with that completely. Just listen to his final testimony: "At the same time that my sanity was restored, my honour and splendour were returned to me for the glory of my kingdom" (v. 36a). These things that he had lost in his arrogance and pride were restored to him because <u>now</u> he recognized his place and put God first. And these things were added to him: "My advisers and nobles sought me out, and I was restored to my throne and became even greater than before" (v. 36b). When the curtain comes down on your life, when the final act is done, what will you be? Listen to</p>	<p>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33).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할지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선시하면 이 모든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하여 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에 완전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36a절). 자신의 오만과 교만함으로 잃었던 것들이 이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우선시 하면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 졌습니다: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6b절). 여러분의 삶에 커튼이 내려질 때, 마지막 장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p>

The Amazing Turnabout 1st March 2015  
(Daniel 4:1-37)

<p>Nebuchadnezzar's final words in chapter 4 in v. 37. I wonder if you could put your name into this verse? "Now I, Nebuchadnezzar", - put your name there instead if you can - "Now I praise and exalt and glorify the King of heaven, because everything he does is right and all his ways are just. And those who walk in pride he is able to humble."</p>	<p>무엇을 하겠습니까? 4 장 37 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는 마지막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 넣어 보십시오 -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p>
<p>Why should God exalt the humble? Why do they receive his favour? It is because of another king who willingly humbled himself: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 even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6-8). This humble King is named Jesus. However, his time of humiliation is over and now he is once again exalted in glory Now he has accomplished our salvation and returned to the Father's side. This is why the humble are exalted - not because their humility is meritorious, but because they fix their eyes on their Lord, who was once humbled and is now glorified, instead of looking at themselves.</p>	<p>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를 높이실까요? 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까요? 그것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던 또 다른 왕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6-8). 이 겸손한 왕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굴욕의 시기는 끝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그 아버지의 옆자리로 돌아간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칭송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높임 받는 이유입니다 - 그들의 겸손함이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한때 자신을 낮추었다고 이제 영화롭게 된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p>
<p>God resist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Those who will kneel before his throne of grace will receive the salvation and life which is found in Christ alone. So take your eyes off yourself and your accomplishments. Take your eyes even off your failures and disasters. Stop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Instead, lift your eyes heavenward and look to Christ, the humbled and exalted King. His death and resurrection are the means by which you are restored to your senses and made welcome in heaven itself. Let's celebrate that this morning as we come to the Lord's Table. <span style="float: right;"><u>Amen</u></span></p>	<p>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지 않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구원과 삶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식과 자신의 업적으로부터 눈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와 재난으로부터도 시선을 돌리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대신에, 눈을 하늘로 향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높아지신 왕,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총명을 되찾고 하늘나라에서 환영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오늘 아침 성찬식에 나아갈 때, 이를 축하하도록 합시다. 아멘.</p>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